

Daily Auto Check

2021. 11. 01 (Mon)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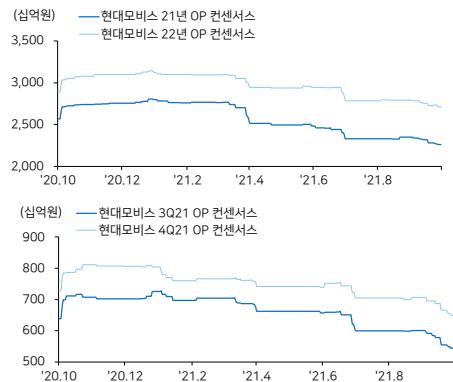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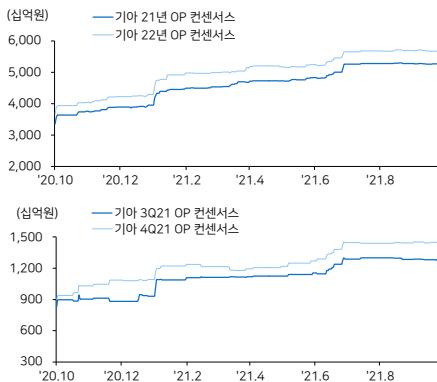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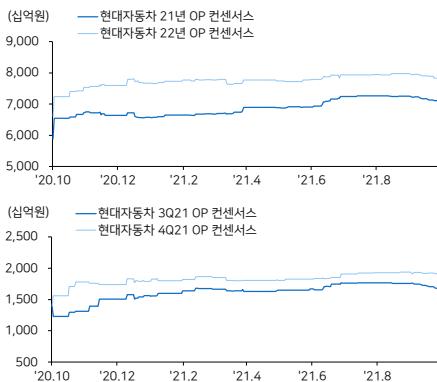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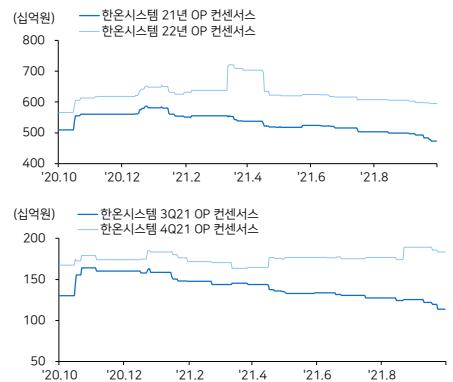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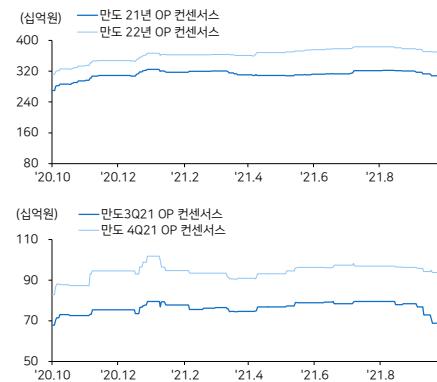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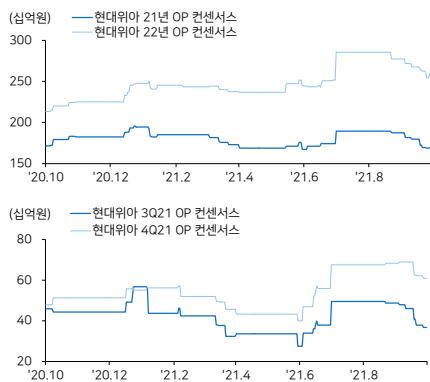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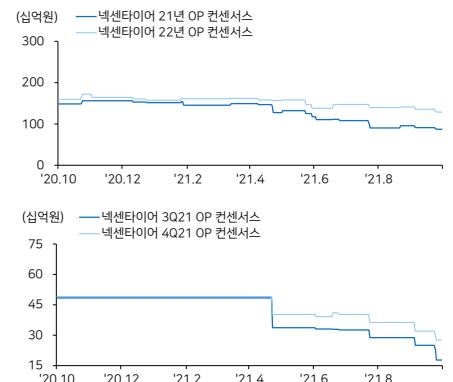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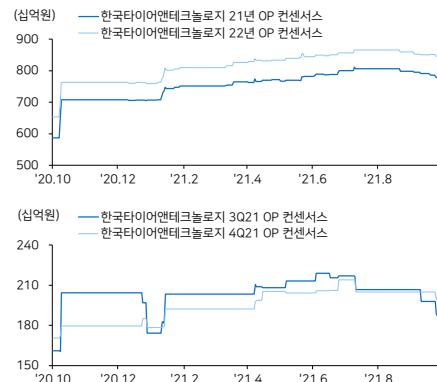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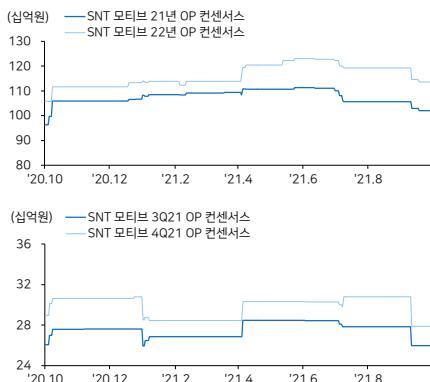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기아, 美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페토리얼' 전략적 투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기아는 미국 전고체배터리 스타트업 '페토리얼'에 전략적 투자로 전고체 배터리 공동개발 및 생산에 나선다. 앞서 현대차는 '솔리드파워', '솔리드에너지시스템' 등 전고체배터리 기업에 투자한 바 있음.
<https://bit.ly/3vZOk4U>

후기업, 자체 OS 개발 속도…IT 기업과 주도권 경쟁 '치열' (THE GURU)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에 속도. 폴스바겐은 지난 7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SSP (Scalable System Platform)을 공개했으며,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비에서 자체 OS 개발에 집중.
<https://bit.ly/3EC6tJn>

유럽 자동차 공장 다음 달 멈추나?…'마그네슘 대란' (MBC뉴스)

중국 정부의 단소 중립 정책에 전력난까지 겹쳐면서 마그네슘 공급에 차질이 생김. 마그네슘 가격은 올초 300만원/噸에서 1,300만원/噸으로 내 배가량 상승. 마그네슘 수급 95%를 중국에 의존하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이 우려됨.
<https://bit.ly/3w25Khf>

하이브리드 출입한 토타타, 전기차 'bZ4X' 공개…미래차 '비전' 바꿔나? (데일리카)

토타타가 순수 전기차 bZ4X의 실물을 29일 공개, 앞으로 출시할 전기차 제품군 명칭을 bZ로 정하고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요크 스토리어링 휠, OTA 업데이트, 솔리루프 등을 탑재. '22년 2분기부터 판매할 계획.
<https://bit.ly/3EzjP8T>

현대차 아이오닉 5·기아 EV6, 6개월 새 5만 대 판매 (이투데이)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6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 두 모델의 인기에 현대차그룹은 신형 EV 모델을 연달아 내놓을 예정. 기아는 EV6 GT를, 현대차는 아이오닉6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
<https://bit.ly/3Et5ipx>

韓·日·EU 등 25개국 대사 서한, "美편향 전기차 세제지원 부당" (매일경제)

한국, 일본, EU 등 자동차 제조국 25곳의 주미대사들이 "미국의 친노조 빅3와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 세제지원액에 차별말라"며 미국 정치권에 서한을 보낸다. 이들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안이 WTO 무역규범을 위반한다고 지적.
<https://bit.ly/3GFHSV0>

"인피니온 CMO, 반도체 칩 '저스트 인 타임' 안돼…재고 비축해야" (THE GURU)

글로벌 원성차 업계에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를 통해 균형. 인피니온 CMO는 토요타를 예로 들며 "물류비 절약 차원에서 저스트 인 타임 전략을 취했으나 앞으로 비상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https://bit.ly/3GBrIg7>

Tesla places 45 GWh LFP battery order from CATL for 2022 (Teslarati)

테슬라가 CATL로부터 45GWh 상당의 LFP 배터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Tesla 80만대의 차량에 해당하는 물량. CATL은 이러한 소식에 대한 언급을 거부함. 테슬라는 내년 기기네바다 Capa도 40Gwh 이상으로 확장이 예상됨.
<https://bit.ly/3pXSyt3>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직접적인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